

# 웃음의 근원은 안전, 안전의 근원은 기본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홍상영 이사

1890년 설립된 에머슨은 글로벌 제조 및 기술 회사로, 전 세계 산업 및 소비자 시장에 생산성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은 크게 다섯 가지 사업 부문을 통해 운영된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클라이밋 테크놀러지, 넷 워크 파워,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그리고 커머셜 앤 레지덴셜 솔루션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이 에머슨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화학, 석유 및 가스, 정제, 펄프 및 종이, 전력, 용수 및 폐수 처리, 채굴 및 금속, 식음료, 생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정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뛰어난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특화 엔지니어링,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및 유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자동화 지원의 선두주자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공정을 위한 제품생산 및 시스템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때문에 작업에 대한 위험은 타 업종보다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안전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법이다. 반도체용 화학제품과 가스를 생산하는 특성상 안전, 그리고 작업의 전기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재 현천일 기자 safehci@safe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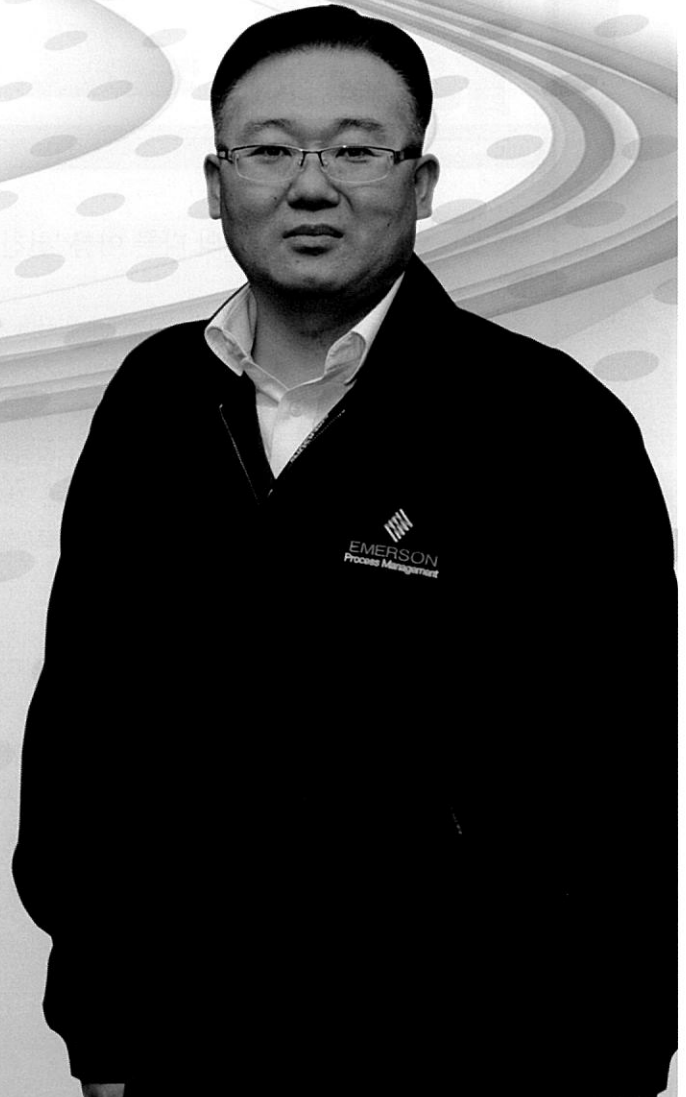
## 끊임없이 노력하는 안전전문가

이곳의 안전은 홍상영 이사가 총괄한다. 많은 안전관계자들이 우연한 기회에 안전을 접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도 그런 케이스다. 전 직장에서 품질을 담당하다 공정을 이해하는 인력이 없어 안전 보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에 안전지식과 경험이 없어 안전관리를 하며 많이 애를 먹었지만, 그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밤을 새워가며 선진 안전보건 관련 지식을 습득했고, 작업공정에 맞는 안전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왔다. 또 미국 본사와의 의사 소통을 통해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금까지도 미국 본사와 2주일 간격으로 안전 관련 전화 회의를 실시하면서 작업공정의 위험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한다.

## 자유로움과 안전의 조화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직원들 얼굴과 입가에서는 웃음이 항상 떠나지



않는다. 홍상영 이사는 이러한 작업 분위기 속에 안전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에게 항상 안전을 강조하고 참여하길 독려한다. 이는 절대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 안전을 절대 어렵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안전은 바로 기본이다. 작업 전 안전을 잠시라도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선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위험이 있다면 보고하여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작업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는 것, 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는 것, 작업장의 정리정돈은 확실히 해놓을 것 등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안전이다. 홍 이사는 수시로 작업장을 점검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이렇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관리가 이곳의 안전관리 기초를 잘 보여준다.

###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 무재해의 지름길

그가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이 사고의 주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만 막는다면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인식만 바뀌면 된다고 보고 있다. “사고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항상 안전한 행동을 하는 습관을 갖고, 안전담당자의 당부만 제대로 지킨다면 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 사업장에서 그의 안전에 대한 당부는 절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 번 위험이 발견되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위험을 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킨다. 단,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귀찮아 할 수 있기에 그 방법만 달리할 뿐이다. 웃음이 바로 그 해답이다. 웃음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당부한다. 상대방에게 웃음을 통한 안전 당부는 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곳 현장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최고의 안전사업장 지향

Accident “0”, Incident “0”, Injury “0” in working. 이곳의 작업 신념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이곳은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18001) 인증이 없다. 그동안은 안전활동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필수다. 이에 홍 이사는 지난해 3월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준비에 한창이다. 그 준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올해 초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에 선진안전보건시스템까지 접목된다면, 이곳은 어느 사업장보다 튼실한 안전문화를 갖추게 될 것이다.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선진국 수준의 안전사업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홍상영 이사의 모습에서 진정한 안전인의 모습이 느껴진다. ☺